백양사 고불매, 봄빛 속 '禪' 피우다

3월 29~30일 '선·매·향'의 장
선명상·사찰음식 체험 '풍성'
무공 스님 "선향 느끼는 계기"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는 3월 29~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5 백양사 고불매 축제 선·매·향(禪·梅·香)'을 봉행했다.

봄의 길목에서 천년고찰 백양사에 다홍빛 매화가 피어났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고불매 아래, 향기로운 꽃과 고요한 선명상이 어우러진 '선·매·향(禪·梅·香)'의 장이 열렸다. 고불매 앞에서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미학을 담은 특별한 봄 축제가 펼쳐졌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29~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5 백양사 고불매 축제 선·매·향(禪·梅·香)'을 봉행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수령 350여 년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고불매'의 개화를 기념하며 선(禪)과 매화, 그리고 향(香)을 주제로 한 선명상 체험과 전통문화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다.

백양사 고불매는 백양사 대웅전 맞은 편에 위치한 수령 약 350년의 홍매화 나무다. 매년 봄마다 담홍색 꽃을 피우는 고고한 자태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매화로 손꼽히며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고불매'라는 이름은 1947년 백양사에서 부처님의 원력을 기리기 위해 결성된 '고불총림'에서 유래됐다. 이 매화는 선비와 수행자들에게 청렴과 인내, 깨달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무공 스님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400년 세월을 살아온 고불매는 기후에 예민하게 반응해 꽃을 피우는 지혜로운 존재"라며 "백양사를 찾아준 대중과 함께 봄의 정취 속에서 선과 향을 느끼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는 선명상과 힐링 음악이 어우러진 '선명상' 프로그램, 도성 스님의 기도법회, 금강 스님의 선명상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꽃잎이 흩날리는 경내에서 시각·청각·미각이 어우러진 오감 체험을 통해 불교문화를 만끽했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준비한 도시락, 고불매 빵, 백양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양 먹이기 체험 등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차 시음, 영상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고불매는 그 자태와 향기로 호남을 대표하는 매화이자 부처님의 기품을 닮은 상징"이라며 "축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제를 축하했다.

이날 선명상을 지도한 일수 스님은 "잠시 자기를 돌아보며 번뇌와 망상,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통불복장교육원, 불복장 전승교육 개강

상·하반기 6개월 간 담양 용화사서 진행



한국불교전통불복장교육원(법주 수진 스님, 용화사 주지)은 4월 2일 전남 담양 용화사에서 2025년도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과정을 개강했다.〈사진〉 이날 개강식에는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전통 불복장의 맥을 잇고자 하는 발심을 다졌다.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복장을 30~40년간 수행해 오면서 조상경을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란 쉽지 않다"며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깨우쳐, 우리 불자들에게도 이 깊은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전통불복장 강좌는 1년 과정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각 3개월씩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붓다, 제1차 정기총회 성료

임원 위촉 및 정관 개정…올해 사업계획 심의도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제1차 정기총회가 3월 29일 전주 아리랑하우스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총회는 임명장 수여 및 감사장·공로패 전달을 포함한 1부 공식행사와 2024년 사업실적 보고 및 2025년 사업계획 심의를 중심으로 한 2부 정기총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 8월 설립한 이래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일을 해왔다"며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사)붓다가 이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미술 거장 호크니 예술, 울산서 만나다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
8월까지 디지털 전시 진행
'라이트룸' 아시아 첫 전시


울산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진행 중인 몰입형 디지털 전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울산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MANDI)가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예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디지털 전시 'Bigger & Closer (not smaller & further away)'를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영국 런던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세계 각국을 순회 중인 몰입형 아트 브랜드 '라이트룸(Lightroom)'의 아시아 최초 전시로, 호크니가 지난 60여 년간 회화·사진·무대디자인·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온 예술적 실험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형태로 선보인다.

전시는 △수영장(POOLS) △원근법 수업(PERSPECTIVE LESSON) 등 총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각 작품은 대형 스크린과 바닥, 벽면 전체에 펼쳐지는 몰입형 영상으로 구현돼 관람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간 듯한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 드로잉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창작한 작품들을 관람객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태화강 복합문화공간 만디를 운영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이사장 묵암 지선 스님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태화강변 만디를 울산 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에서 영감을 얻고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권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라이트룸울산 공식 홈페이지(www.lightroomulsa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만디(052-243-4939)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륜 스님 "삼론종 정체성 확립하겠다"

삼론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3월 27일 서천 천용사서
사부대중 600여 명 운집


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남륜 스님이 삼론종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에 남륜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3월 27일 서천 천용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남륜 스님은 삼론종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불법의 등불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종단 관계자 및 대덕 스님, 학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남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삼론종의 전통과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과 대중 중심의 운영을 이끌겠다"며 삼론종의 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수행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은 이어 "세상의 혼돈 속에서 불법을 밝히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삼론에 담긴 심오한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살아 있는 지혜로 전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와 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아침,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와 산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삼론종의 새 출발을 느꼈다"며 "삼론종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종단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륜 스님은 더욱 활동적이고 역량 있는 분이니, 종도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단 주요 임원 임명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신임 임원으로는 총무부장 도광 스님, 문화부장 성화 스님, 재무부장 성혜 스님, 규정부장 명일 스님, 사회부장 도일 스님 등이 임명됐으며, 교육원장 범지 스님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충남 서천=노덕현 기자·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원오사, '한국-베트남 교류 음악회'

3월 30일 충남교육연수원서



베트남 불교 사찰 원오사(주지 팃 뜨엉탄 스님)는 3월 30일 천안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원오사 주지 팃 뜨엉탄 스님은 행사에 앞서 산불 피해와 태국·미얀마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전 참석자와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며 모연을 제안했고, 이에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기금을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운사, 정호 대종사 77주기 추모다례재

3월 28일 대웅보전 등서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28일 근대 한국불교 선구자인 영호당 정호 대종사 제77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역대 조사들의 큰 뜻을 이어 후학들은 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전법 활동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천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봉행

3월 29일 시민회관 광장서



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문 스님)는 3월 29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현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점등식은 각자의 마음 속 자비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희망의 표현"이라며, "한국의 산불과 미얀마·태국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평택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봉행

3월 30일 평택역광장서



평택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적문 스님)는 3월 30일 평택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회장 적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세상을 밝히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뜻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평택시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 봉행

시민의 종 광장서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수 스님)는 3월 29일 김해시민의종 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김해불교사암연합회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탑은 부처님 진리를 상징하는 등불로, 어리석음을 걷고 지혜를 밝히는 수행의 길잡이"라며 "절과 탑은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공간이다. 날씨가 추움에도 함께해 주신 불자들과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63회 춘계향사

3월 29일 경내 사당서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3월 29일 경남 밀양 표충사 경내 사당 앞에서 제563회 춘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리산 등에서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본분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근석 밀양 부시장은 추모사에서 "표충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무등산 산신대재 봉행

3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3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무등산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신과 자연에게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사진〉

주지 중현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직면한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공업 중생의 과보"라며 "자연 앞에 머리 숙이고 참회해야 한다. 오늘 산신대재는 이 땅의 산신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 미륵암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3월 30일 회향법회 봉행



경남 진주 미륵암(주지 현산 스님)는 3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자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정성으로 일상이 정갈해야 한다"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이 결국 내 삶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설했다.

주지 현산 스님은 "이번 불사를 계기로 미륵암이 지역 불자들의 마음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